



사회적 약자 보호 '새등지' 서 더 알차게

사단법인 패트롤맘 사무실 전주 효자동 2가로 이전 개소

사단법인 패트롤맘 전라북도지부(지부장 진체빈)의 사무실 이전 개소식이 지난 5월 31일 효자동 2가에 위치한 새 사무실에서 열렸다.

개소식에는 전주매일신문 조봉성 대표를 비롯해 삼호저축은행 이규완 이사장, CBMC 이학성 회장, 전주대

학교 임성진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내빈들과 패트롤맘의 진체빈 전라북도 지부장과 도내 각 지역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소식에는 전주매일신문 조봉성 대표를 비롯해 삼호저축은행 이규완 이사장, CBMC 이학성 회장, 전주대

학교 임성진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내빈들과 패트롤맘의 진체빈 전라북도 지부장과 도내 각 지역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패트롤맘 전북지회는 사회적 약자 보호, 생활안전 이바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

치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현재 완주, 진안, 임실, 순창을 제외한 도내 전 시군에 지회를 둔 패트롤맘 전북지부는 이번 달 완주지회 설립을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도내 전 시군 지회 설립을 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어르신 한마당 축제' 준비 만전

인후3동 새마을협 경기운영방식 논의

인후3동(동장 최성식) 새마을협의회(회장 황승일)에서는 31일 오는 4일 열리는 제1회 효시랑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앞두고 경로당별 명령운동회 조 추첨과 경기운영방식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내 19개 경로당 어르신 700여명이 참여하는 제1회 효시랑 어르신 한마당 축제는 명령운동회와 삼계탕 봉사,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황승일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장은 "큰 행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무엇보다도 당일 날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2017 U-20월드컵 성공기원 친선축구경기

전주시의회는 지난 30일 전주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개막을 1년 여 앞둔 2017 FIFA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친선 축구경기를 가졌다.

이번 친선 경기는 전주시의회 의원과 전주시 기획조정국 공무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U-20 월드컵 성공 개최와 세계적 축구 개최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철저한 준비를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축구경기에 참가한 강동화 전주시의회 축구동호회장은 "2017 FIFA U-20 월드컵은 전주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문 스포츠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스포츠 축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덕진동 주민센터, 민원인 위한 편의시설 설치

덕진동 주민센터(동장 백기우)는 지난 27일 민원인들을 위해 협업계, 인비의자, 핸드폰 충전기 등 24개 민원 상당의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덕진동 백기우 동장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며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동 주민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완산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적응교육 수료식 축하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장하연)는 31일 전북하나센터에 신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3명의 지역적응교육 수료식에 가족으로 참여해 이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완산서 보안계장을 비롯한 경찰관 2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수료를 축하는 의미로 꽃다발과 캐익을 선물하고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종 법령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수료식을 마친 북한이탈주민 신씨는 "모든 것이 낯설고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깜짝 방문해 주신 보안계 신변보호담당관님들 덕분에 위안이 됐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하나센터 지역적응 교육은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편입해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적응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으로 2주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삼천지구대, 민경협력 특별방법 전개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는 31일 삼천2동 자율방범대원 12여명과 함께 그린공원·삼천동 막걸리마을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민경협력방법을 응원했다.

이날 학동순찰은 공원 가로등 상태와 공용화장실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공원 등을 배회하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주취자의 위험위기를 도와다.

자율방범대 박복동 부대장은 "지역주민과 경찰의 파트너십 강화와 상호 협력으로 부족한 치안안전을 보완하고 범죄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로 범죄기회 차단 및 사전·사후 범죄 퇴치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진수기자

의산시 안보단체협의회, 울릉도-독도 탐방

의산시 안보단체협의회(회장 한원수)에서는 최근 '호국정신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열원하기 위해 우리 땅 독도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이 후원하고 의산시 안보단체협의회가 주관하여 최근 잇따른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기 위해 의산시 안보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4일 독도 탐방을 시작으로 25~26일 울릉도 탐방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첫 날 독도경비대 장병들을 만나 위로 격려하고 준비해간 위문품도 전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의산=장양원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대야남초에 사랑의 도서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학원)는 지난달 31일 군산시 대야면 소재 대야남초등학교에 사랑의 도서(100만원)를 제공했다. 대야 남초등학교는 농어촌에 위치한 어울림학교이며 전교생은 27명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도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학원 본부장은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기자

전북개발공사, 임대주택 관리소장단과 소통간담회

전북개발공사(서장 고재찬)는 지난달 31일, 공사 2층 회의실에서 임대주택 관리소장단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고재찬 서장은 '임대주택 문화커뮤니티 활성화를 울여 임대아파트 관리의 정책방향으로 삼고 입주민이 자랑스러워 하는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시설 및 환경개선, 헬스장 탁구장 에어로빅, 작은영화관, 건강체조 등 단지별 입주민 문화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재찬은 "입주민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개선과 문화혜택 등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친절미인드와 서비스 적극적인 홍보노력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신광영기자

건보 미적용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6월 한달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권리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이 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건강보험 가입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및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재 기자



완산구, 찾아가는 청소년보호 캠페인 실시

완산구청(구청장 최락희)은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전전한 청소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를 방문해 음주·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청소년보호캠페인은 보건소 전주시청소년복지센터 회원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담배·알코올 등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청소년 고민상담, 심리검사 등을 실시했다.

이날 전주상업정보고 학생들은 담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는 다짐 서명과 함께, 담배 유해성 퀴즈대회 등을 진행해 '세계 금연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완산구청 기독청소년과 유정وك 과장은 "청소년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유해 악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